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8월 1일

**CUOMO 주지사, 뉴욕시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속도 감시 카메라로 뉴욕시 과속 감시 스쿨존을 모니터링하고 이 카메라에 포착된 증거물을 속도 위반 책임을 부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5년 시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 통과로 운전자들에게 이들 구역을 조심 운전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를 포착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법집행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뉴욕시 과속 감시 스쿨존을 통행하는 아동, 보행자, 운전자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 운전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으로 뉴욕시 스쿨존 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보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들 보호 구역 내에서의 과속 운전 위반 건수를 뿌리뽑고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을 지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법집행을 도와줄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줄 것입니다.”

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10년 간 혁신적인 교통 엔지니어링과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율이 사상 최저의 기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과속 운전은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율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조치가 입증되었고 이 법안은 분명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이 법안을 채택해주신 주지사, 뉴욕주 상하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법으로 뉴욕시는 일정 기간 내에 최고 20곳의 과속 감시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뉴욕시 교통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합니다:

- 과속 위반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 과속 위반 분쟁은 NYC 주차위반부서(Parking Violations Bureau)가 관정한다; 그리고
- 범칙금은 위반 건수 당 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25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가 이 5 개년 시연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뉴욕시는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기관에 (i)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스쿨존의 숫자와 비교해 모든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ii)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스쿨존의 숫자와 비교해 모든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속 운전 건수, (iii) 범칙금 통지서 발부 건수, 위반 처분 건수, 범칙금 수령 건수, (iv) 프로그램 비용, (v) 프로그램에 따른 판결 과정 및 그 결과 처리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30 일 후에 발효되며 5 년 후 만료됩니다.

상원 법안을 주관하는 Jeffrey D. Klein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해 큰 승리입니다. 이 새로운 카메라로 우리는 스쿨존 내에서 벌어지는 무모한 과속운전에 마침내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게 되면 차량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시속 5 마일마다 아이의 생사가 갈리는 스쿨존에서 이런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법안을 승인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상하원의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상원 법안을 주관하는 Deborah J. Glick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과속운전 감시 카메라(Speed Camera)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의 결단에 감사 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로 우리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보호하는 또 다른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속운전은 뉴욕시 사망사고의 1 위를 차지합니다. 이 법은 과속운전 차량을 감시할 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과속운전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